

## 오얀타 우말라 페루 대통령, 우파 문민군국주의를 선택하다

호르헤 루이스 양갈리 바르가스

페루의 2011년 대통령선거는 마지막 군부독재(1968~1980) 이후 여섯 번째, 마지막 문민독재 (1992~2000) 이후 세 번째 민주 선거였다. 또한 독재정부의 손아귀에 빠져드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페루 국민의 모호한 소명의식을 보여준다. 이 모호함은 경제학자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전 대통령이자 경제학자인 알레한드로 톨레도, 전직 리마시장인 루이스 카스타네다와 같은 쟁쟁한 후보들이 탈락한 후 오얀타 우말라와 게이코 후지모리 두 후보만이 결선투표에서 경쟁하게 되었을 때 분명해졌다. 전자는 퇴역 육군중령이고, 후자는 마지막 문민독재자의 딸이다. 군부독재의 아들이나 아니면 불명예스러운 문민독재자의 딸이나,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던 페루 국민은 과도한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고 엄청난 사회경제적 불균형에 대한 속 시원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을 선택했다. 그리고 프랑스와 한국 등에서 무관을 지낸 사람이 이러한 목적에 적임자처럼 보였다.

페루 국민에게 이번 선거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 그리고 일부 정치계급(주로 자유주의적 우파)과 페루 지식인들에게는 목적이 수단보다 더 중요한 길로의 전환을 의미했다. 페루에서 신자유주의 담론을 가장 잘 대표하는 노벨문학상 수상자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가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민족주의적 장광설과 브라질 노동당을 대표하는 사회주의 성향의 룰라 다 실바 브라질 전직대통령에 더욱 근접한 후보를 지지한 사

실을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바르가스 요사의 지지를, 1990년 대선에서 경쟁자로서 그에게 패배를 안겨 준 알베르토 후지모리의 딸인 다른 대선후보 게이코 후지모리에 대한 보복행위라고 극단적으로 단순화하여 이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결선투표 당시 오안타 우말라의 공식대변인이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의 아들인 알바로 바르가스 요사였기 때문에 아들을 위한 노년의 고독한 아버지의 행동으로 읽어서도 안 된다. 페루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동시에 페루의 자유주의 지식인인 바르가스 요사는 민주주의를 위해, 민주주의라는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서 퇴역장교 오안타 우말라를 지지한 것이다.

### 통치를 위한 오안타의 ‘거의’

오안타 우말라 현 페루 대통령이 구현하고 있는 권력의 이질적인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요인 중 하나는 그가 ‘거의’ 지방 출신이라는 점이다. 오안타는 리마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는 페루 산악지대에 위치한 아야쿠초 지방 출신이다. 입후보를 위해 신고한 오안타 우말라의 소득 수준은 약 3천 달러이다. 페루에서는 중산층 대부분의 월소득이 1천~3천 달러이기 때문에, ‘거의’ 중산층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퇴역장교라는 신분은 ‘거의’ 군인이나 마찬가지로이다. 이러한 오안타의 직업적 특징에서 우리는 페루의 넓은 영토에 분포해 있는 수천 명의 예비역이 보낸 확실한 지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들에게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을 지고 있는 오안타는 정치권력이 경찰력의 지원으로도 억압하거나 통제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과도하게 폭력적인 사회적·환경적 분쟁이 발생한 지정학적 지역에 ‘비상상태 선언’을 통해 군사화시킴으로써—그리고 군대식으로 엄격하게 행동하는 통치자를 대통령 자리에 앉혔다는 예비역의 기대에 부응함으로써— 상징적인 방식



2011년 대선 운동 당시 게이코 후지모리(좌)와 오얀타 우말라(우)

으로 이 빛을 청산하고 있다.

이데올로기적·정치적 측면에서 브라질의 전직 대통령 룰라 다 실바와의 유사성은 오얀타를 ‘거의’ 사회주의자로 만든다. 정치적 행보에서 우고 차베스와 유사하면서도—우고 차베스는 1992년에, 오얀타 우말라는 2000년에 반정부 무장봉기를 지휘했다—동시에 방법의 차이 때문에 오얀타는 ‘거의’ 군국주의자이다. 오얀타 우말라에게서 ‘거의’가 아닌 것은 페루국민당(PNP: Partido Nacionalista Peruano)에 대한 확실한 지도력이다. 그러나 ‘동질적인 페루공화국’이라는 페루국민당의 정강을 충실히 따르려는 오얀타는 다민족적·다문화적·이언어적인 페루 현실 앞에 서면 ‘거의’ 국가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거의’ 때문에 오얀타 우말라는 21세기 페루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대통령이 되고 있다. 그의 예측불가능성은, 관례적으로 수도에서 행하던 전통적인 국경일 군사퍼레이드를 ‘지방분권화’하여 올해 7월 국경

일에는 페루 중앙의 우안카요라는 지방도시에서 벌이기로 한 것과 같은 상징적인 결정에서 분명해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정은 수도에 집중된 정치적 또는 경제적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한다는 실제적인 성격보다는 오히려 해당 지역의 국내관광을 촉진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지방분권이 목적이라면, 17개 중앙부처 중 15개 혹은 17개를 영구적으로 지방의 주도에 설치해야 할 것이다.<sup>1)</sup>

그러한 의미에서 페루 내륙의 한 도시에서 군사퍼레이드를 벌이기로 한 결정은 반대로, 1980~90년대의 무력충돌 시기에 가장 혼란스러웠던 지역들 중 한 곳이자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약 테러리즘’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무장계릴라 ‘빛나는 길’(Sendero Luminoso)의 잔존 세력이 남아 있는 지역에서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다. ‘거의’ 지방분권적인 일부 상징적인 행동은 그 사소함 때문에 오안타 우말라가 대표하는 집단, 즉 우파 문민군국주의 세력에게 권력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다.

### 오안타, 군국주의의 일신된 얼굴

페루에서 군부 집권은 스페인의 지배에서 독립을 선언한 거의 바로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군국주의자들의 장기 집권은 세 번이다. 첫 번째는 1827년부터 1872년까지, 두 번째는 1883년부터 1895년까지, 세 번째는 1930년부터 1939년까지였다. 1968년 벨라스코 알바라도 장군의 사회주의 정부는 군국주의라는 수식어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시민

1) 페루 정부의 중앙부처는 총 17개로 모두 수도 리마에 위치해 있다. 정부가 중앙부처들을 각 지방의 수도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17개 지방으로밖에 보내지 못한다. 게다가 경제부나 국방부와 같은 ‘전략적인’ 부처를 고려할 때, 17개 부처가 모두 지방으로 이전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필자는 ‘15개 혹은 17개 중앙부처’라고 언급하였다.

사회와 군부 간의 공동통치라는 점에서 문민군국주의라고 지칭한다.

문민군국주의는 그들의 보호 또는 위협 하에 있는 국민에게 토착언어의 공식적인 존중과 같은 문화적 권리와 정권을 바꿀 수 있는 정치적 권리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사실은 배웠지만, 페루 사회에 여전히 다양한 갈등을(가령 환경·사회·노사 갈등 등등) 지속시키고 악화시키는 불평등의 가장 뿌리 깊은 원인에 합당한 해결책을 찾는 방법을 배우지는 못했다. 이러한 인식적 결여가 문민군국주의를 뒤덮고 있다. 그것도 시민권력의 또 다른 얼굴인 군사적인 얼굴을 위협적으로 과시하면서 말이다.

초기에 좌파 담론과 연합한 새로운 군국주의는 1970년대의 소위 군사혁명정부에 뿌리를 두고 있다. 토지개혁과 같은 급진적인 개혁 이외에도 ‘혁명정부’라고 스스로 명명한 행위만 보더라도 군부와 좌파의 시민독트린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1980년대의 군국주의는 어느 면에서는 육군대위 출신 블라디미로 몬테시노스가 핵심 정치·군사 보좌관으로 있던 알베르토 후지모리의 독재정부와 관계가 있다. 그 시절 정치권력의 어두운 면이 유지된 동시에 급진적으로 변화한 것이다.

후지모리 집권 시기는 이미 우파와 확실하게 결합한 문민군국주의가 역사적으로 과도한 권력을 남용했던 시대였으며, 그 결과 당시 대통령 후지모리와 정권의 핵심인물인 몬테시노스가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여러 권력집단, 특히 경제 및 언론기관의 가증스러운 협박과 부정부패는 극에 달했다. 만연한 부정부패 속에서 가장 혜택 받은 이들은 독재자의 측근이었고, 페루 국민은 이에 맞서 싸웠다. 따라서 최근의 대통령선거에서 문민군국주의에 보낸 페루 국민의 신뢰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오직 가능한 것은 2000년 10월 알베르토 후지모리 정권에 대한 오얀타 우말라 당시 소령이 주도한 군사반란을 부정부패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해석하며 선거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다. 정치권력은 부정부패에 빠져 있었고, 사람들은 현 대통령인 오얀타 우말라가 이에 맞서기를 기대하고, 나아가 이러한 방식으로 그가 속해 있는 집단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깨끗



오얀타 우말라 대통령

이 하리라 기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얀타 우말라와 안타우로 우말라 형제가 주도한 군사반란에 대한 두 번째 해석은, 발렌틴 파니아구아가 임시 대통령이던 시절, 의회가 인준한 사면과 관련이 있다. 페루 좌파 진영이 주도한 사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말라의 정치적 행보를 부추기고 도왔다. 그러나 형인 안타우로의 경우는 달랐다. 무력을 신봉한 안타우로 우말라는 2005년 소위 ‘안다와일라소’라 불리는 새로운 반란을 도모하였고, 이 때문에 현재까지 감옥에 복역 중이다.

페루 의회의 오얀타 우말라 특별사면은 결국 선거와 정치에서의 지지로 확대되면서 두 번의 대선에서 페루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도록 이끌었고, 두 번 모두 결선투표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첫 번째 대선에서 아메리카혁명인민동맹(APRA)의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 알란 가르시아와 경쟁하여 패배를 맛보았지만, 두 번째 대선에서는 독재자 알베르토 후지모리의 딸 게이코 후지모리와 경쟁하여 승리를 쟁취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면의 산물로 합법성뿐 아니라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면서 오얀타 우말라는 좌파와 연계된 문민군국주의의 새로운 기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대통령에 오른 지금 그의 내각 구성을 보면 오얀타는 좌파와 거리를 두면서 오히려 우파와 연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오얀타의 ‘거의’는 21세기 초 페루 정치의 두 가지 썩은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첫째, 오얀타 우말라와 알레한드로 툴레도가 대변하는(비록 두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있지만) ‘새로 부상한 안데스 시민’의 취약함과 경박함이 명백해진다. 둘째, 선거라는 가면극의 사악함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의미 있는 행위인 선거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정당이나(복수형의 ‘정당들’이라는 단어 자체가 페루에서는 하나의 가면에 불과하다. 정당이라는 단어의 뜻을 확대해야 APRA만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나머지 정당은 정치세력의 연합에 불과하다) 정치적 성향(좌파, 우파, 중도좌파 등등)의 진정한 대표가 아니다. 우리가 가진 권리는 가면을 가장 잘 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 정치언론매체가 페루의 선거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선거 서커스’ 또는 ‘선거 카니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타당하다. 우리 페루인 현재, 권력을 잡기 위해 좌파 시민의 가면을 쓸 줄 알았던 우파 문민군국주의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또 다른 가면도 있지 않을까? 아마도 그럴 것이다.

[황미선 옮김]

---

호르헤 루이스 양갈리 바르가스(Jorge Luis Yangali Vargas) - 페루중부국립대학교 교육대학에서 전임강사로 재직하였고, 현재는 멕시코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이베로아메리카 대학교 대학원에서 수학 중이다.

황미선 - 스페인 마드리드 콤플루텐세 대학교(UCM) 박사과정 재학.